

# 지역 건설업계, 30년째 국가유공자 집수리 '훈훈'

본보 2023 캠페인 '아름다운 사회 함께 만들어요'

###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제공 1994년부터 총 311가구 혜택...순국선열 희생 정신 기려

광주·전남 건설업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30년째 앞장서고 있다. 이를 통해 순국선열의 희생 정신을 기리고 그 후손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지역 건설업계가 일조하고 있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이

하 협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낡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무료로 개·보수해 주고 있다.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비롯 상부상조의 사회분위기 조성, 주택건설업계의 위상제고를 위해 지난 19

94년부터 30년째 이어오고 있다.

협회는 올해도 광주지방보훈청으로 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아 선정한 애국지사 유족 윤모(91·광주 동구 지산동) 씨 등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노후주택 22가구에 대한 주거여건개선사업을 지역주택건설업체 18개사가 지난달부터 공사를 시작해 6월중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창 공사중이라고 7일 밝혔다. 개·보수 지원대상 22가구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의 보수요망 사항을 토대로 지원업체와 협의를 통해 출입문, 방, 부엌, 마루, 화장실 등의 보수공사, 창호공사, 지붕개량공사, 외부도색, 보일러교체, 도배, 장판 등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며 이 사업은 1994년 시작 이래로 올해까지 총 311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참여 회사가 전액을 자비부담하는 이 사업에 나선 지역주택건설업체는 ㈜광신종합건설, 고운주택㈜, 골드플러스㈜, 국제미소래㈜, ㈜대광건설, 대성건설, ㈜리젠시빌주택, ㈜리제, 라온주택, 모아건설산업(주), ㈜미래도건설, ㈜모아종합건설, 보광종합건설, 엠에스글로벌(주), ㈜영무건설, ㈜유미개발, 중흥건설, ㈜호반건설 등 모두 18개 업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정기사업장은 "30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지역주택건설업체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데 묵묵히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낡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무료로 개·보수해 주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제공)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현장방문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이 7일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 청년 보육실습 온실 등 시설물을 살펴보고 있다. (농촌진흥청 제공)

## “모바일앱 시장 655조 규모 성장”

### 국내 광고 시장 1위 카톡

지난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전체 규모가 약 5천억 달러(한화 약 655조 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및 분석 플랫폼 data.ai(옛 엠에니)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앱 매출 현황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전체 모바일 앱 시장의 성장을 주도한 것은 모바일 광고 분야였다. 모바일 광고는 2021년 대비 14% 성장한 3천300

억 달러(약 440조 원)의 소비자 지출이 발생하며 전체 모바일 앱 시장의 68.8%를 차지했다. 모바일 광고 시장을 주도한 분야는 소셜 미디어 앱과 동영상 스트리밍 앱들로, 전체 광고 지출의 절반가량이 이 분야에서 이뤄졌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 앱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모바일 앱 시장의 소비자 지출을 주도해왔던 게임 앱들은 광고 분야에서

도 힘을 발휘했다. 전체 모바일 광고의 약 35%가 게임 분야에 집행됐으며,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하이퍼 캐주얼 게임 및 퍼즐 게임 등이 광고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얻었다. 반면, 모바일 앱 내 사용자 지출은 2021년 대비 약 2%가 줄어든 1천670억 달러(219조 원)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급증했던 지출이 정상화되는 과정과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국내 모바일 광고 수익 차트에서는 국민채팅 앱 '카카오톡'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 시급 1만2천원 시 '1인 자영업자' 19만명 ↑

### 2018년 기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 늘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24% 인상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만명이 1인 자영업자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소는 2010-20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국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인상 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한다.

이를 한국에 적용하면 최저임금 24.7% 인상 시 고용원이 있는 19만명의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바뀐다는 것이 파이터치연구소의 주장이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24.7% 인상, 시급 1만2천원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형태별 자영업자 변화를 살펴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은 비

슷한 추세를 보이다가 최저임금이 크게 상승한 2018년(16.4%)을 기점으로 변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크게 줄면서 둘 사이의 격차가 커졌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로 바꾸는 부작용을 유발한다"며 "자영업의 최저임금을 타 업종과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국산-수입차 '개소세 차별' 사라진다

### 7월부터 그랜저 54만원 ↓ ...국산차 과표 18% 하향조정

다름 달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이 사라진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졌다. 국세청은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런 결정은 향후 3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장 출고가격 4천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766만원(4천200만원×18%) 줄어든 3천444만원으로 책정된다. 과세표준이 766만원 감소하는 만큼, 출고가의 5%인 개별소비세 38만원, 개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11만원, 부가가치세 5만원까지 총 54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가야 쏘렌토 이하 출고

가 4천만원)는 52만원, 르노 XM3(2천300만원)는 30만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2천600만원)는 33만원, KG 토레스(3천200만원)는 41만원씩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출고가 5%~3.5% 탄력세율)가 재연장된다면 과세표준 하향에 따른 세부담 감소 폭은 줄어들게 된다. 개소세 탄력세율이 연장되면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 하향에 따른 세 부담은 30만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은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및 포피의 기준판매비율도 이달 중에 고시하고 3년간 적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h2>상무지구 상가 (매매)</h2>	<h2>장성토지 매매</h2>	<h2>경매교육 [ 특수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h2>
<p>▶ 중심 상업지구</p> <p>(6층, 7층) = 140평</p> <p>시세 → 14억</p> <p>급매 6억8천</p> <p>보3천, 월 380만 ( 용 4억5천 )</p>	<p>▶ 장성호(댐) - 5분</p> <p>광주 - 20분</p> <p>토목공사 완료</p> <p>6m 도로접</p> <p>(100평, 150평, 200평 가능)</p>	<p>* 특수 전문반 모집 ( 10명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li> <li>2) 중급반 (실전부터 ~)</li> <li>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li> <li>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li> </ol> <p>▶ 경매 물건 추천 ◀</p> <p>광주</p> <p>광산구 연산동 (근린시설) ▶ 감평가 29억 → 최저가 20억          북구 신안동 (근린시설) ▶ 감평가 50억 → 최저가 28억          북구 일곡동 (근린주택) ▶ 감평가 8억3천 → 최저가 5억8천          동구 불로동 (근린주택) ▶ 감평가 31억 → 최저가 22억          북구 일곡동 (근린주택) ▶ 감평가 10억 → 최저가 7억5천          광산구 수원동 (근린상가) ▶ 감평가 4억 → 최저가 2억2천          북구 운암동 (근린상가) ▶ 감평가 1억7천 → 최저가 1억2천          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평가 54억 → 최저가 19억</p>
<p>010-6670-9800</p>		

